

인 터 뷰

지속가능발전의 뜻은?

- . sustainable development를 번역한 것으로 단어 자체가 어렵다.
- .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과도하지 않게,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발전이다.
- . '재생가능' 또는 '순환형' 또는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재생가능한, 순환형 또는 재활용을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연결시키는 예로서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한꺼번에 너무 잡아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들어 줄 수 있다. 어미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새끼 수가 줄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잡는 양이 줄어든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내년, 후년, 계속 잡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당한 양을 잡아야 한다. 이 때 적당한 양을 '최대 지속가능 수확량'이라고 한다. '지속가능'이란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물자원을 '재생가능자원'이라고 하는데 일년 후 '재생산'되는 부분만을 이용하면 근간을 해치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현명한 이용'이라고도 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순환형, 재활용과 재생가능한 이용의 차이는?

'현명한 이용'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이다. 재활용은 '광물자원'과 관계 있다. 깡통이나 유리병, 모두 사용 후 재활용하면 광물 자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자연파괴도 적고 에너지도 절약하므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셈이 된다. 덜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나?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개념은 '형평성'이다. 이 때 형평성은 현세대-미래세대간의 형평성까지 포함하는, 즉 세대를 뛰어넘는 형평성으로 자연자원은 오늘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서서 후손의 후손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 1992년 리우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거치면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개념을 발전시키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여러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저해시

키지 않는 발전이라고 1987년 ‘우리공동의미래’ 라는 보고서에서 정의하였고 1992년 리우세계정상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정의하였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다고 하겠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간의 차이는?

세계적으로 빈곤국가가 존재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재 세계 인구는 60억이고 2050년에는 9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억 현재 인구 중 1/5인 12억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안전한 물’을 얻지 못하는 인구 또한 이에 버금간다. 생물종 다양성: 약 5000종의 짐승이 동물 중 1/4이 멸종위기에 처함. 약 1만종의 ‘새’ 중에서 1/10인 약 1천종이 멸종위기에 처함. 생물종 다양성 역시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고 이 문제를 환경문제와 함께 풀어야만 한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으로 개념을 확대한 또 다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은 통합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를 예로 들면 산업, 가정, 교통 등의 분야와 관련있고 사용 후 오염물질인 부산물은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발전의 통합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이다. 실행부서가 아니라 자문부서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중기, 장기 정책의 자문안을 수립한다.

에너지, 물, 국토관리, 자연관리 등의 분야와 이들 분야와 연결된 사회갈등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한된 자원’의 이용은 보전과 긴장관계에 있고 상호 충돌이 일어나며 이러한 충돌은 자주 사회갈등으로 발전하곤 한다. 그래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사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접근하고 있다. 에너지, 물, 국토관리, 자연보전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요하네스버그 이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을 5개 주제로 각 2년 단위로 나누어 구체적 실천사항들을 UN이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2~4년은 물, 2004~6년은 에너지 등의 순서로 이행방안이 수립되고 있다.